
국어 생활을 위한 새국어생활

홍윤표 · 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연구소의 《국어생활》 6년(1985년-1990년, 모두 23호), 국립국어연구원과 국립국어원의 《새국어생활》 20년(1991년-2010년, 모두 80호)의 역사를 가진 간행물이 쉽없이 발간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립국어원으로서 크게 축하를 받을 만하다. 진실로 축하를 드린다.

《새국어생활》이 간행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새국어생활에 바란다’는 내용을 특집으로 꾸민다고 한다. 《새국어생활》 간행 이후 20년 동안 처음으로 독자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집자들의 이러한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

《새국어생활》에 바라는 것은 이처럼 독자들의 의견을 묻는 자세를 계속 가져 달라는 것이다. 독자나 학자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도 간행 20주년을 맞는 특별한 기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도 일부 전문가들이 아니라 다양한 국어 관심자들로부터 들었으면 좋겠다.

《새국어생활》의 편집진들은 이 책의 성격 규정에 꽤나 고민할 것이다. 학회지와 같은 전문 학술지를 지향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양지’를 지향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쉽표 마침표’와 같은 온라인 소식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어학 연구자들이나 언론 종사자 등 국어에 관심이 있는 몇몇 전문가들을 주된 독자층으로 하여 편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 중 국어에 대한 전문 지식은 학계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종합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도외시당하고, 일반인들에게 국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알리려고 하는 의도는 어렵고 흥미가 없어서 외면당하기 일쑤다. 그래서 그 성격이나 방향이 어정쩡한 간행물이 되어 가는 것 같다. 국립국어연구원과 같은 연구 기관의 성격과 국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국립국어원의 성격을 동시에 합쳐 놓은 탓일 것이다. 이제는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새국어생활》에 요구하고 싶다.

성격을 분명히 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국어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글은 이제 전문 학술지로 넘겨 버리든가 아니면 가칭 ‘국어 연구’라는 연구지를 간행하고, 책 제목처럼 ‘국어 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 ‘국어의 경어법’ 등의 특집은 전문 학술지에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국어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든 국어 생활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국어 생활에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이다. 국립국어원이 관심을 가져야 할 국어 생활은 국민들의 국어 생활이기 때문이다.

‘국어’는 국어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어는 우리 모든 생활과 문화에 연관되기 때문에, 국어에 대해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그들은 국어에 대해 일가견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가장 정확한 지식인 양 주장하는 모습을 흔히 발견한다. 국어학자들이 경청해야 할 내용도 무척 많지만, 어떤 때에는 국어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보일 때가 더 많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말과 글에 대해 정확하게 연구해서 알리지 못한 국어학자들의 책임인 것을 국어학자들은 통감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새국어생활》 편집진들은 두 가지 일을 병행하였으면 좋겠다.

하나는 국어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을 찾아 나서는 일이다. 만약에 마땅한 필자를 찾지 못하겠으면, 국어학자들에게 새로운 주제로 글을 쓰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어학자가 본 한글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면 지금까지 한글 디자인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한글 디자인 연구자들의 왜곡이나 오류(예컨대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등)들을 바로 잡아 주고 올바른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컨대 ‘국어학자가 본 한글 서예와 한글 서예가가 본 한글 서예’란 내용도 마찬가지로 한글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한글 서예를 발전시켜 국어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또한 국어학자들의 한글 서예에 대한 식견을 높이는 데에도 큰 공헌을 할 것이다. ‘만담가들이 보는 국어 발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만담가와와의 접촉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 국어학자로서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어나 방언을 인식하는 만담가들의 생각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발생한 ‘휴대전화 문자 입력 방식의 표준화’ 문제를 보는 이공계 전문가들의 인식은 그들과 30분만 앉아서 대화를 해 보아도 국어학자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다. 길거리에서 상품을 선전하는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왜 한결같이 동일하며(그들이 어찌면 ‘음성 성형 수술’을 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은 너무 심한 비유일까?), 또 각 서비스 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언어 교육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국어 생활이 어떠한 현상에 있으며 거기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어 생활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이 《새국어생활》에 보이기를 바라는 것이 《새국어생활》에 바라는 중요한 희망이다.

《새국어생활》에 바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많으나 한정된 지면 때문에

여기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중요한 한 가지는 반드시 제시하고 싶다. 그것은 국어 생활은 국어 교육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어 생활에 대한 국어 교육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일이어서 서로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려는 노력 때문에 국어 교육이 소홀히 다루어 졌다면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들의 국어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된 업무이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국어 생활에 대한 국어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더 나아가서 국립국어원의 책임이다.